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2년 3분기(7·8·9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2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화두는 단연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반복돼 온 폭염과 폭우에 올해는 태풍까지 연이어 덮쳐 해안가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KBS부산의 <월간부산> ‘침수도시’ 편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에 주목해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가 갖는 구조적 문제에 접근,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KNN <뉴스아이>는 ‘좋은 물 마실 권리, 이제는 찾자’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올여름 최악의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부울경 지역민의 불안에 주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일보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 관련 보도는 습한 날씨와 실외기 과열 등으로 인한 단순 여름철 화재사건에서 출발했으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제외, 화재경보기 중지 등의 문제를 짚어내며 ‘인재’였다는 점을 드러냈고,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시의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보도도 눈에 띄었던 3분기였습니다. 부산시 ‘영어 상용화 도시’ 추진 시점에 공공언어의 방향성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가 하면(KBS부산),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북항 오페라하우스의 공사 기간, 건설비용 점검을 통해 부실한 사전검증을 공론화하기도(부산MBC) 했습니다. 또한 그간 지역언론에서 등한시돼 왔던 부산시의 회의 의정감시 활동을 지역민에게 전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KNN). 특히 부산MBC <빅벙커>는 ‘110억에 팔린 송도 앞바다 경관, 도시계획’ 편을 통해 부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재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후위기 속 지역민의 안전에 주목하고 권력을 감시할 뿐 아니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고민한 15편의 후보작 중 2022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2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기획 <원전의 그림자 핵폐기물>(윤파란·현지호)은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을 연상케 하며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원전문제, 그중에서도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문제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다른 선정작은 국제신문의 뉴스레터 ‘뫼라노’입니다. 기사 3줄 요약으로 지역뉴스의 문턱을 낮춘 ‘뫼라노’는 지면기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영상 뫼라노’, ‘와이라노’, ‘Editor’s

PICK'으로 지역소식을 쉬우면서도 유익한, 저널리즘을 포기하지 않은 뉴스레터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2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13편에 대한 평가도 첨부합니다.

2022 3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추천작 목록			
번호	매체	보도	기자/프로그램
1	KBS부산	기획 <필수 노동 실태보고서>	강예슬 황현규
2	KBS부산	부산시 영어상용도시 추진 관련 연속 보도	이이슬
3	KBS부산	침수도시	월간부산
4	부산MBC	기획 <원전의 그림자 핵폐기물>	윤파란 현지호
5	부산MBC	오페라하우스 관련 연속 보도	송광모
6	부산MBC	안전을 담보로 한 전기, 위험한 발전소	빅명커
7	부산MBC	110억에 팔린 송도 앞바다 경관, 도시계획	빅명커
8	부산MBC	시사포커스IN 프로그램	시사포커스IN
9	KNN	일몰제 여파, 국·구유지 용도폐지 신청 잇따라	최한솔
10	KNN	한국법인인데 해외법인 혜택 주다니	김상진
11	KNN	기획<좋은 물 마실 권리, 이제는 찾자>	김건형 이태훈
12	국제신문	시리즈 <뒤집힌 정치 지형에 지역 현안 어떻게 되나>	김민정 김진룡 정지윤 최혁규
13	국제신문	뉴스레터 '뒤편'	뒤편
14	부산일보	<일가족 3명 참사 '재송동 아파트 화재' 당시 경보기 안 울렸다>	김성현
15	부산일보	<40여 년 방치된 강제징용 194명의 뉘, 이젠 보듬어야>	이승훈

■ 부산MBC\_기획<원전의 그림자 핵폐기물>

갈등프레임에 묶여 버린 원전 이슈와의 단절  
새로운 공론장의 가능성 제시한 부산MBC



부산MBC는 7월 18일부터 나흘간 연중기획 원전의 그림자 핵폐기물 ‘한국의 온칼로는 어디에’를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초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인 핀란드 ‘온칼로’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지난 40여 년간 풀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핵폐기물은 ‘위험한 물질’ 내지는 ‘골칫덩어리’ 정도로 인식돼 왔고, 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마땅한 해법과 성공사례가 없어 상상력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 없는 문제’로 치부돼,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논의는 ‘넘비주의’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산MBC의 이번 보도가 더욱 값집니다.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핀란드 ‘온칼로’ 모습을 통해 막연했던 고준위 방폐장의 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최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반 특성에 기반한 부지선정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뢰 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알게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도 새로웠습니다. 일련의 보도는 한국에서도 그간의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활용법도 칭찬할 만합니다. 그간 지역에서 여론조사는 선거 출마자 지지율이나 주요 시책사업 필요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MBC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관련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해 지역민의 의견을 파악, 주민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현 제도의 미비점도 드러냈습니다.

노후 원전의 위험성과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속해서 보도해 온 부산MBC, 한발 더 나아가 핀란드 현지 취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첫발을 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2022년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10만 년 영구격리... '한국의 온칼로'는 어디에>(7/18) 뉴스 화면 갈무리

[관련 기사]

보도 일자	기사 제목과 링크
7/18	10만 년 영구격리.. '한국의 온칼로'는 어디에_윤파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8D-sKU8dIw">https://www.youtube.com/watch?v=U8D-sKU8dIw</a>
7/18	고리2호기 수명연장?.."사고 나면 234명 사망"_현지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NqhKc5oHnk">https://www.youtube.com/watch?v=pNqhKc5oHnk</a>
7/19	영구방폐장의 조건..온칼로 최고 가치는 '안전'_현지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0-YiVRQv8w">https://www.youtube.com/watch?v=g0-YiVRQv8w</a>
7/20	32년 허송세월 방폐장은 왜 실패했나_윤파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Ktc96baCCY">https://www.youtube.com/watch?v=MKtc96baCCY</a>
7/21	부지 못 찾으면 다시 '원점'...방폐장 전략하나?_윤파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46lBuOecAZo">https://www.youtube.com/watch?v=46lBuOecAZo</a>
7/28	시사포커스IN <한국의 '온칼로'는>(윤파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PUIhKPq2hU&amp;t=1221s">https://www.youtube.com/watch?v=OPUIhKPq2hU&amp;t=1221s</a>
9/13	부울경 53% "원전은 위험"..수명연장은 '팽팽'_윤파란 (여론조사)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Svgb_2aVu0">https://www.youtube.com/watch?v=iSvgb_2aVu0</a>
9/13	'고리2호기 수명연장' 누가 결정하나?_현지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9FzRgg4ozE">https://www.youtube.com/watch?v=F9FzRgg4ozE</a>
9/14	지역 여론 "핵폐기물 위험" "방폐장 안전 필수"_현지호 (여론조사)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6Y6YmkyRBtQ">https://www.youtube.com/watch?v=6Y6YmkyRBtQ</a>
9/14	'방폐장법' 속속 발의..핵폐기물 저장 본격화?_윤파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1B_2hFQKoM">https://www.youtube.com/watch?v=C1B_2hFQKoM</a>

■ 국제신문\_뉴스레터 ‘뽀라노’

디지털콘텐츠는 연성뉴스다?  
쉽고 친숙한 형식에 로컬저널리즘 한 스푼 더한 ‘뽀라노’



국제신문은 지역언론에서는 처음으로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시작했으니, 딱 찬 3년째입니다. 대표 콘텐츠 ‘세 줄 요약’ 외에도 ‘에디터스 픽’, ‘영상 뽀라노’, ‘와이라노’, ‘비주얼 픽’ 등을 통해 매일 아침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콘텐츠는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보입니다. 뉴스레터뿐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플랫폼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신문사의 디지털콘텐츠는 지면 기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더라도 연성뉴스(생활정보, 미담 등)에 국한된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휘발되는 디지털의 특성에 맞춘 콘텐츠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신문의 디지털콘텐츠인 뉴스레터 ‘뽀라노’는 흥미위주 소재뿐 아니라 지역의 정치, 사회, 노동, 경제 이슈를 자신만의 형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저널리즘을 지켜내고자 한 노력이 빛났습니다.

‘세 줄 요약’에 ‘에디터픽’을 더해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고, 무엇보다 ‘영상 뽀라노’는 지면기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콘텐츠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3분기 <조선소 노동자가 스스로 철창에 갇힌 이유는>(7/1), <핵폐기물·RE100...원전정책에 빠진 3가지>(7/15), <친환경 에코델타시티, 도로를 다시 뜯어낸다고?>(8/26) 편은 지역언론 5개사가 주목하지 않은 지역밀착이슈였습니다. 또한 ‘와이라노’의 8월 29일 자 <야간 노동자의 잠: KTX 청소노동자의 현실>은 부산역 현수막에서 취재를 시작해 지역노동자의 삶을 더욱 긴밀하게 체감하게 했습니다.

국제신문은 ‘몰래카메라’ 형식을 취한 유튜브 콘텐츠로 한 차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클릭유도, 흥미위주 소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민을 위한 로컬저널리즘을 위해 ‘뉴스레터 뽀라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와이라노]야간 노동자의 잠 : KTX 청소노동자의 현실

조윤화 기자 truexwa@kookje.co.kr | 입력 : 2022-08-29 21:00:03

뉴스레터 '뽀라노'의 마스크트 '라노'입니다. 곧 있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인데요. 귀성객들은 한바탕 KTX 예매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열차는 언제 타도 깔끔한데요. 모두 청소노동자들의 땀 덕분입니다. 라노가 최근 부산역에 갔더니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KTX청소노동자 15명이 탈의실에서 잔다. 코레일은 수면시설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노가 알아봤습니다.



야간근무를 마친 KTX 객차 청소노동자들이 오전 근무 들어가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 국제신문 뉴스레터 '뽀라노' 관련 이미지 갈무리

#### [관련 기사]

- [뽀라노 영상] <조선소 노동자가 스스로 철창에 갇힌 이유는>(7/1)

<https://www.youtube.com/watch?v=fiMj9dWZ1JU&t=22s>

- [뽀라노 영상] <핵폐기물·RE100...원전정책에 빠진 3가지>(7/15)

<https://www.youtube.com/watch?v=ValP06iOlPE&t=87s>

- [뽀라노 영상] <친환경 에코델타시티, 도로를 다시 뜯어낸다고?>(8/26)

<https://www.youtube.com/watch?v=4iQKjo-N9OU>

- [와이라노] <야간 노동자의 잠: KTX 청소노동자의 현실>(8/2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829.99099007826>

- [에디터스픽] <그들도 사람입니다>(9/14)

[http://www.kookje.co.kr/contents/newsbody.asp?code=1700&class\\_cd=320100&key=20220914.99099003802](http://www.kookje.co.kr/contents/newsbody.asp?code=1700&class_cd=320100&key=20220914.99099003802)

## ■ 2022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 1. KBS부산\_기획 <필수 노동 실태보고서>(강예슬·황현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7930>

필수 노동자를 빅데이터로 추적해 근무 여건 및 처우 등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와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 필수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노동 현장도 취재하여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2. KBS부산\_부산시 영어상용도시 추진 관련 연속보도(이이슬)

<https://www.youtube.com/watch?v=8NPE8rbErNU>

부산시 '영어상용화 도시' 추진 발표 이후, KBS부산은 영어상용화도시 추진에 따른 우려점, 반발을 지속 보도했다. '청년 로컬러'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용호 드래곤브릿지' 등 공공사업이나 공간에 한글·한자·영어가 혼용된 이름을 붙여 시민과 소통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고, 이는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영어상용화도시에 대한 단순 찬반 의견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논란이 되는지 맥락, 배경을 알 수 있는 보도다.

### 3. KBS부산\_월간부산 <침수도시>

[https://www.youtube.com/watch?v=bc\\_Tnu1zo0c&t=306s](https://www.youtube.com/watch?v=bc_Tnu1zo0c&t=306s)

해당 방송은 부산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가 갖는 홍수에 대한 보편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현지점에서 필요한 정책과 시설 등을 제시했다. 일회성 방송이지만, 침수피해를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 4. 부산MBC\_갈 길 먼 오페라하우스(송광모)

<https://busanmbc.co.kr/programme/KLxlD5vY28NBGgvNx3r/p/m79I5XethGC/single/16180>

9월 기준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정률 38%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면부 랜드마크 디자인 공법 놓고 갈등인 가운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과 건설비용도 증가해 사전 검증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설계내용이 달라지면서 평범한 건축물로 전락하여 랜드마크 의미도 사라지고, 경진대회 진행도 부실한 점을 밝혀내어 지역사회에 공론화하여 감시기능이 잘 드러난 보도로 평가된다.

### 5. 부산MBC\_빅병커 <안전을 담보로 한 전기, 위험한 발전소>

<https://www.youtube.com/watch?v=s-9OZKitVE&list=PL-CDjd5BtvG2DVDSwVSXGu0xPLw21GXbs&index=11&t=138s>

과연 전기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현황을 알아보고, 시대를 역행하며 거꾸로 가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역의 환경파괴는 물론 주변 주민들의 안전 관련 예산도 알맞게 쓰이지 않는 상황이며, 원자력발전소는 노후 원전재가동 문제,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지역의 관점으로 전달했다.

### 6. 부산MBC\_빅병커 <110억에 팔린 송도 앞바다 경관, 도시계획>

<https://www.youtube.com/watch?v=Py1Dt4ciGcg>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땅에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배경과 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민간자본의 거대이익 발생 등을 짚어본다. 아파트 개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재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7. 부산MBC\_시사포커스IN

[https://www.youtube.com/watch?v=6eEL7Qzyl98&list=PLwxnUGBLm2eQ\\_Y3bVnkMIP0yzpX8xZ91I&index=3&t=1335s](https://www.youtube.com/watch?v=6eEL7Qzyl98&list=PLwxnUGBLm2eQ_Y3bVnkMIP0yzpX8xZ91I&index=3&t=1335s)

방송뉴스는 대개 4분~6분 분량의 리포팅에 정보를 담아 나열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 탓에 연속보도, 기획보도의 경우 매일매일 뉴스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는 정보공백이 생기게 된다. 부산MBC 시사포커스IN은 이러한 보도국의 한계를 잘 돌파해 나가고 있는 시사프로그램이다. 부산MBC 보도국의 기획, 연속 보도를 20분으로 축약해 정보전달의 완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달력도 높였다. 특히 3분기에는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은 해운대 수목원, 낙동강 녹조 등 이슈도 자체적으로 점검해 눈에 띄었다.

#### 8. KNN\_일몰제 여파, 국·구유지 용도폐지 신청 잇따라(최한솔)

<https://www.youtube.com/watch?v=asSLevk4ISo>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지자체의 장기간 미집행으로 방치되었다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사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사이에 위치한 도로 등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 KNN은 이같은 사례가 해운대에만 29건 접수되었다며, 해운대는 불허 입장이라지만 주민협의 등 통해 용도폐기될 수도 있음을 보도하고, 도시계획시설 장기간 방치한 지자체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언론이나 의회 관심없으면 시행사 뜻대로 될 가능성 높는데 언론보도로 문제를 환기하는 의미가 있었다.

#### 9. KNN\_한국법인인데 해외법인 혜택 주다니(김상진)

<https://www.youtube.com/watch?v=ZIGSMY-UGQQ>

지역언론의 역할은 시정감시뿐 아니라 시정을 감시하는 시의회의 활동도 감시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의 활동 중 시민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이도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지역언론은 시의회의 의정활동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런 가운데 해당 보도는 임시회에서 나온 내용 중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던 요즈마그룹코리아와 관련한 시의회에서의 비판을 전달해 눈에 띄었다. 이런 보도가 더 많아져, 시의원의 적극적 시정감시 행동이 시민들에게 알려질수록 시의원도 이런 감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 10. KNN\_기획 <물은 생명입니다\_좋은 물 마실 권리, 이제는 찾자!>(김진형·이태훈)

[https://www.youtube.com/watch?v=kIY1tvTFZ\\_4](https://www.youtube.com/watch?v=kIY1tvTFZ_4)

올여름 최악의 녹조창궐, 창원에서는 유충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부울경 지역민의 식수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KNN은 지역민의 좋은 물 마실 권리 찾기를 위한 연중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KNN은 첫 보도에서 캠페인, 다큐멘터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의 큰 숙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최근 지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주요 현안을 기획아이템으로 선정해 시의적절했다. 주로 환경단체와 학계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

하고 있다.

#### 11. 국제신문\_시리즈기사 <뒤집힌 정치 지형에 지역 현안 어떻게 되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729.22001008779>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산지역 기초단체장이 대폭 바뀌면서 해당지역의 현안 사업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취재했다. 기초단체장이 바뀐 5개 지역(기장군, 해운대구, 남구, 북구, 동구)의 추진 사업의 목적 변화 및 개발 방향의 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짚음으로써 해당 지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또한 발생 뉴스만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기초단체장의 당락이 지역현안 사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기획취재하여 정치지형의 변화가 지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침을 시사했다.

#### 12. 부산일보\_일가족 3명 참사 ‘재송동 아파트 화재’ 당시 경보기 안 울렸다(김성현)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719170118531>

지난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거실 에어컨 전선 합선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부산일보는 기사의 초점을 여름철 습한 날씨와 실외기 과열, 전선 꼬임에 맞추는 한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7월 12일 기사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일가족 3명 참사 ‘재송동 아파트 화재’ 당시 경보기 안 울렸다>는 불이 나기 직전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관리사무실에서 화재경보기를 모두 중지하는 바람에 실제로 화재 곧이어 발생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그 탓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이번 화재 피해가 커진 이유가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 여름철 화재사건 관련 보도는 법의 사각지대, 안전불감증 문제로 옮겨야겠다. 2022년 10월 6일 1면엔 <“재송동 아파트 화재 참사 되풀이 막자” 입법 첫발>이 실렸다. 지역신문의 문제제기를 지역의회가 받아 법 개정까지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보인다.

#### 13. 부산일보\_40여 년 방치된 강제징용 194명의 넋, 이젠 보듬어야(이승훈)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1119181400095>

부산일보 단독보도로 부산영락공원 지하 무연고자실에 40년째 방치돼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 문제를 공론화했다. 광복절 즈음에 보도가 이뤄져 시의적으로도 적절했고, 부산일보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가 해결 의사를 내비치면서 국립 추도시설인 ‘망향의 동산’에 안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언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잊혀질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공론화했다.

<끝>